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Vol.151 2018 May / June

Special theme
암치료의 새 시대를 열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환자를 가족처럼 아끼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헌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헌

주위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용기를 내어 고맙지만 잊었던 인연을 챙기며 다정한 안부를 전하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의 5월도 의료진, 교직원 가족들과 축하와 감사를 나누는 특별한 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도 개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뜨거운 열정으로 미래의 의술과 인술로 매년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하며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자리를 두터이 하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국내 최초로 류마티스 전문 병원으로서 한 획을 그으며 앞으로 더욱 탄탄한 2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기관과 함께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도 든든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두 기관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다져나갈 길을 '한양토픽'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스페셜 테마 '암치료 새 시대를 열다'에서는 낮은 생존율로 환자들에게 무서운 '암'으로 인식되는 간암, 폐암, 췌장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더불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관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Dr. Movie' 칼럼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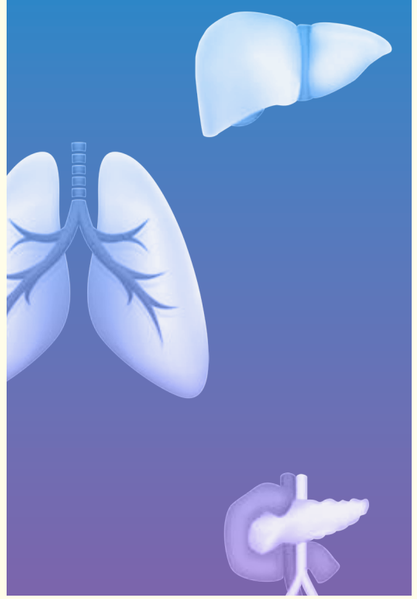
오고 가는 안부 속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5월과 6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감사의 정만큼 따뜻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ol.151 2018 May / June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적정성 평가 1등급으로 빛나다 ❷

암치료 새 시대를 열다

간암, 폐암, 췌장암 생존율은 국내 치료 성적이 낮은 암 3종으로 꼽힌다. 진조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세 가지 암에 있어 더욱 안전하고 명확한 치료를 보일 수 있는 치료법을 통해 환자에겐 안심을, 보호자에겐 믿음을 약속하고 있다.



Contents

02 **즐거운 편지** 환자를 가족처럼 아끼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재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
08 **Hanyang Topic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14 Special theme ❶ 폐암, 완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변화
16 Special theme ❷ 간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
18 Special theme ❸ 췌장암의 조기 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

20 **Hanyang Topic 2**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개원 20주년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국민병원
28 **Dr. Opera** 빈센초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30 **Dr. Movie** 가해자가 외면한 피해자의 상처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하여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파울 클레와 전신경화증
34 **고마운 당신에게**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Hanyang Essay** 한계 없는 도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37 **Hanyang News**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8년 5월 8일 통권 151호
발행인 김경헌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6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삐걱이는 무릎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양재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

양재혁 교수는 다정다감한 주치의, 배울 것이 많은 스승, 좋은 사람으로 자신만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간다. 환자에게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찾아보는 의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매 순간 고집스럽게 실천하고 있다. 잔소리 많은 주치의의 손에서 환자들의 무릎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다. 글. 윤진아 사진. 김재이

진정한 의사의 자격

양재혁 교수의 원래 꿈은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었다. 드넓은 하늘에서 병원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의사로 항로를 수정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 진행됐을 정도로 꽤 큰 부상이었죠. 고통도 심했지만 공군 지원자격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제 다리를 드레싱해주셨던 정형외과 선생님을 만나고 꿈의 궤도가 변경되었죠. 병실 곳곳을 쉴 새 없이 누비며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의사들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희한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만지기만 해도 깨끗이 낫는 듯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웃음)."

'의사란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그답게 의대 재학 시절엔 연합봉사 동아리에 가입해 주말마다 의료봉사를 나갔다.

"의료취약지역인 무의촌을 처음 방문했던 날, 어깨 관절이 탈구돼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있었어요. 팔을 만지지도 못하게 고통을 호소했는데 어깨를 바로잡자 울음을 뚝 그치더군요. 신기함이 어려 있는 어리둥절한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의술의 시작은 환자의 고통을 마음으로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일원이 되어 분쟁이나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픈 이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 양재혁 교수는 무의촌에서 만난 소년의 눈빛을 떠올릴 터이다. 그리하여 환자분들이 돌아가는 길에는 자신의 진심을 한 번쯤 생각해줄 것으로 믿는다.

환자의 완치를 향해 달리는 의사

인간은 무릎이 있어 걷고 달린다. 온종일 몸을 버티고 있는 무릎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했던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환자들에게 다시 일어서고, 걷고,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기기 위해 양재혁 교수는 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양재혁 교수는 무릎관절 관절염(인공관절, 절골술),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십자인대 손상, 스포츠인대 손상, 연골세포 치료 분야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다.

"무릎은 엉덩이나 발목보다 불안정적인 관절이라서 환자가 많습니다. 대개 3차 병원 내에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스포츠 손상, 인공관절 등 세부과목을 나누어 진료를 맡곤 하는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10대 성장기부터 노년기의 퇴행성 관절까지 환자의 일대기에 걸쳐 한 의사가 책임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돼 있어요."

정형외과 슬관절센터 과장을 역임한 양재혁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 자문의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판정 자문의사, 통계청 질병분류상담센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얼마 전에도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셨던 78세 어르신이 내비게이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주 만에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최고의 보람이죠. 실은 저희 할머니도 무릎이 불편해 늘 절뚝이며 걸으셨는데, 손자가 의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현대의술을 못 믿고 고집스럽게 수술을 거부하시더라고요. 환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안기는 의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도 발족, 올해부터는 마라톤도 재개했다. 의대 재학 시절 울트라마라톤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세계 30개국 542명의 울트라맨들을 제치고 100km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저력을 후배들에게도 전수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학병원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 이외에도 의학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에 힘이 실렸다.

"연구도, 논문도, 마라톤도, 꾸준히 정진한 성과에 대한 희열을 맛보고 나니 이제는 습관처럼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지치고 힘들 때면 마라톤 풀코스 중 '마의 30km 지점'을 떠올립니다. 숨이 멎고 다리가 풀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는 구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극복하고 완주라는 희열에 도달하지요. 기실 42.195km를 달리면서 힘들기는 10km 지점이나 20km 지점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참 신기한 게,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결승선이 보이면 없던 힘도 솟아나요."

무릎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치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을 잇는 5대 노인성 질환 중 하나다. 초·중기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에 접어든 4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절을 이식하는 데 부담을 느껴 수술을 거부하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는 환자가 많다. 그래서 양재혁 교수는 따로 시간과 공을 들여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얼마 전에도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셨던 78세 어르신이 내비게이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주 만에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최고의 보람이죠. 실은 저희 할머니도 무릎이 불편해 늘 절뚝이며 걸으셨는데, 손자가 의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현대의술을 못 믿고 고집스럽게 수술을 거부하시더라고요. 환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안기는 의사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걷고 달리는 기쁨 선물할게요

양재혁 교수는 환자 삶의 질이 향상될 때까지 무릎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동시에, 아직 할 일이 많다고도 말했다. 무릎 인공관절 및 스포츠 손상 분야와 관련한 기초연구, 생체 역학, 3차원 이미징 기술, 연골세포 연구를 지속해온 양재혁 교수의 논문은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등 SCI급 해외 논문학회지를 비롯해 정형외과학회지, 스포츠의학회지, 슬관절학회지 및 골절학회지 등 국내 전문학회지에 게재돼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세계 최소침습 척추수술 및 치료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 재생의학을 결합하여 자신의 무릎을 보존하는 '재생치료' 연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은 인공관절을 대체할 가장 가능성 있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고령의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인공관절 대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의술을 어서 개발해야죠. 모쪼록 끈기 있는 연구의 성과물들이 무릎 치료에 널리 적용되어, 100세 시대에 걷고 달리는 기쁨을 누리는 어르신이 늘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실천 50년
미래를 선도할 100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지난 50년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한국 의학 발전과 지역사회 의료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참 의료인 양성'이란 소명의식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의료인 양성의 전당으로 도약하고 있다.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이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지난 50년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글. 정라희 사진. 이승헌, 김지원

최고의 의료인을 키우는 지성의 요람

한양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계획한 것은 1965년부터다. 재단인 한양학원이 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세우고, 1967년 12월 문교부(지금의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1968년 80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1968년 행당동산에서 시작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어느덧 개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주년을 맞아 공모를 통해 '사랑의 실천 50년, 미래를 선도할 100년'이라는 50주년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1회 졸업생인 최호순 학장이 5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전했다. 1972년에는 부속병원인 한양대학교병원이 개원하면서 의학 교육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1995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998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03년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등이 차례로 개원하면서 의학교육 여건이 한층 향상되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측면에서도 남다른 도전을 이어왔다.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의과대학 전용 계단강의동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교육 시설의 물꼬를 틔웠다.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시절에 계단강의동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내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을 자랑했어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름 앞에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죠. 최고의 의학자이자,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 의학교육과 한 차원 앞선 융합연구를 위해

2003년 의학교육학교실 신설, 실험동물실 설립, 2004년 의생명과학연구원 개원, 2008년 재생의학 MRC 유치, 2011년 의학연구지원센터 개소 등 국민 보건 증진과 임상 및 기초의학 연구 발전에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2012년에는 임상술기센터(MESH)를 개소해 효과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갖추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수도권 1위를 달성했으며, 2014년에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의학교육인증평가 6년 인증을 받았다.

같은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름 앞에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죠. 최고의 의학자이자,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스마트 헬스(Smart Health)에 기반을 둔 '스마트 호스피탈(Smart Hospital)'로 나아가고 있다. 교과과정 개편도 준비 중이다.

최호순 학장은 "의과대학 시스템도 과거의 상아탑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이에 대비하고자 스마트 수업과 스마트 강의, 스마트 시험 등 '스마트 교육화'를 위한 기초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 바로 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100대 의과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현재 국제화의 하나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예일대학 등 해외 유수 의과대학에 임상실습 파견을 나가고 있으며, ICT를 접목한 활발한 글로벌 교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기초와 임상 연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등 교내 네트워크와 연계한 융복합 중계 및 연계연구를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도약의 밑거름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 걸어온 50년의 발자취다.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00주년의 청사진을 제시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다음 행보가 벌써 기대된다.

키워드로 돌아보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50년

SINCE 1968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1967년 12월,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한양대학교는 이듬해 1월 의예과 신입생 80명을 선발하면서 그 역사를 시작했다. 1969년에는 80명 정원으로 의학과 개설 인가를 받았으며, 1969년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치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의료인 양성을 시작했다.

Wall of Fame

의과대학 50주년 명예의 전당 인물 2018년 5월 13일 진행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기념식에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3인에게 'Wall of Fame'을 헌정한다. 의학 연구 및 교육업적 분야에 고재경 명예교수, 국내 류마티스학 도입 선구자로 임상진료에서 뚜렷한 업적을 이룩한 김성윤 동문(2회), 계곡에서 어린 학생의 생명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의사자 한증엽 동문(13회)이 50주년 명예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5,152명

의과대학 동문 수 1968년 개교해 80명의 첫 입학생을 받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 매년 110명 이상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652명의 재학생과 4,500명의 졸업생을 합한 총 동문수는 5,000명 이상. 또한 현재 일반대학원과 협동과정에 255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의과대학 기초교실과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266명의 교수가 임상·연구·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선진 의학교육 시설 도입

계단강의동 개관 1980년 9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신축 계단강의동을 개관한다. 지금이야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의과대학 전용 강의를 위한 계단강의동은 유일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생은 물론 타 대학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도 이곳에서 처러졌다.

스마트 교육

4차 산업혁명 대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최근 의학계의 다양한 화두에 발맞추어 스마트 교육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이 되는 2018년에는 스마트 수업과 스마트 강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교육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임상술기센터 MESH

임상 교육의 산실 1995년부터 임상실기종합평가(OSCE) 교육을 시작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은 1998년 임상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선진 임상 교육 체계를 갖추었다. 2012년에는 임상술기센터(MESH)를 개소해 실제 임상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임상술기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50주년 기념식 일정

구분	5/12(토)	5/13(일)
시간	9시 ~ 12시 백남학술정보관 6층	14시 ~ 20시 계단강의동 401호
제목	학생연구발표회	50주년 기념식 & 학술대회
대상	내부인사(학생, 학부모, 교수)	내외부인사(외부인사, 동문, 교수)
주요 내용	• 2017 의과학자 우수과제 시상식 및 우수과제 발표	• 기념식(50년사 헌정식 등)
	• 2018 의과학자 연구계획 발표	• 의학학술대회
	• 정파종 동문 멘토 강의	• Wall of Fame, 타임캡슐 제막식

암치료의 새 시대를 열다

간암, 폐암, 췌장암 생존율은 국내 치료 성적이 낮은 암 3종으로 꼽힌다. 전조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세 가지 암에 있어 더욱 안전하고 명확한 차도를 보일 수 있는 치료법을 통해 환자에겐 안심을, 보호자에겐 믿음을 약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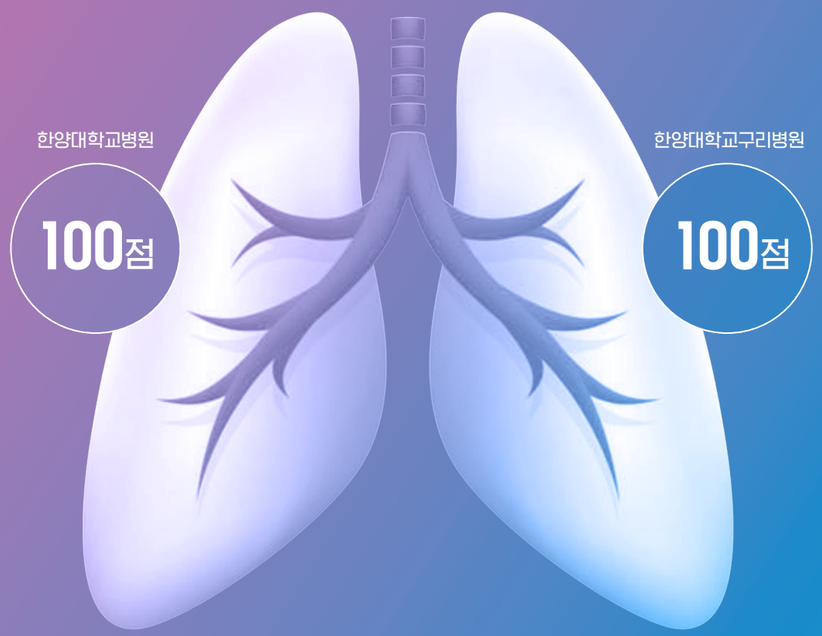
수술별 진료량

간암수술사망률

침묵의 장기를 파고든 불청객 '간암', 암 사망률 1위로 꼽힌 '폐암', 극악의 생존율을 보이는 '췌장암'. 조기발견이 힘든 위의 3가지 암은 국내외 치료 성적이 낮은 암으로 손꼽힌다. 국내에서는 위의 3가지 암 환자를 모두 합해도 전체 암 환자의 20% 수준에 못 미치지만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 전체 암 사망자의 50%에 육박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간암, 폐암, 췌장암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새로운 치료법 연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 가지 암치료는 환자와의 약속이자 미래 의학 발전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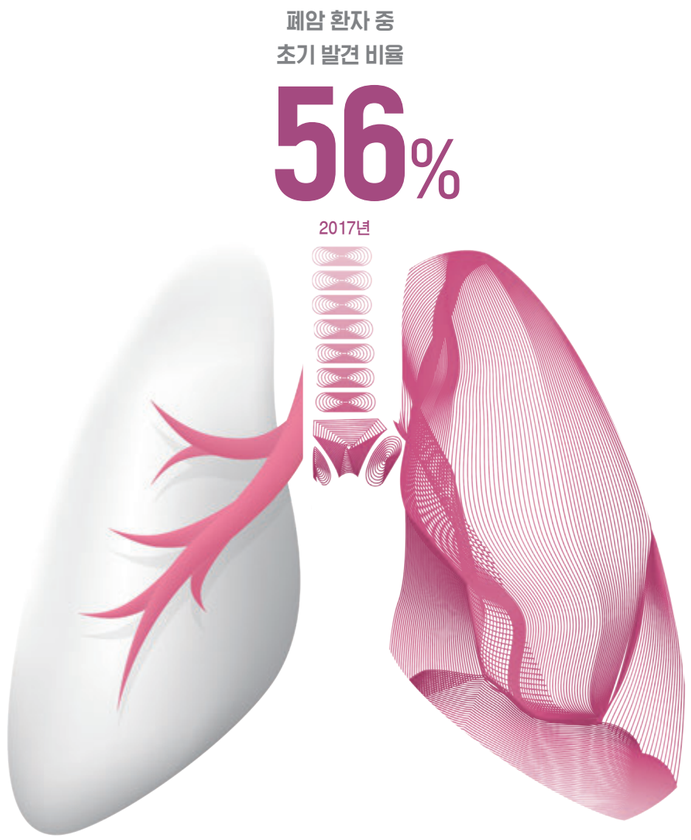
림프절 절제 또는 림프절 샘플링 시행률



췌장암 수술별 진료량

폐암, 완치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변화

완치가 힘든 암으로 손꼽히는 폐암에 대비하여 한양대학교병원은 폐암센터에서 다학제간 통합 진료를 시행 중이다. 최신 의학 지식을 토대로 각 환자에게 최상의 포괄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고 폐암위원회 및 흉부영상회의를 통해 면밀한 진단 과정을 거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 폐암 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 받았다.



글. **장효준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폐암의 증상과 진단

폐암은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실제 무증상에서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20% 미만이며, 폐암으로 진단된 상당수의 환자들은 진행된 병기로 확인이 된다.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뇌 자기 공명 촬영, 전신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 및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폐암의 변화 : 초기 폐암, 비흡연 여성 폐암의 증가

2011년부터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고, 이때 발견된 폐암 환자 중 초기 폐암의 비율은 약 56%였다. 일반적으로 진단된 폐암에서 초기 폐암의 비율이 20%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초기 폐암이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초기 폐암을 치료함으로써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기에, 2019년부터는 국가암검진제도에 폐암 검진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남성 흡연자들이 폐암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성 폐암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 폐암 환자가 약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대부분 비흡연자인 여성 환자의 경우 간접흡연, 실내 조리 환경, 대기 오염 등을 폐암의 원인으로 추정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성 폐암 환자에서는 폐의 말단 부위의 선암 종류가 많으며, 이러한 유형은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기 검진 시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폐암 치료의 진화 : 장기 생존을 위한 노력

폐암 치료는 2000년대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최소절제로 폐를 수술하는 흉강경 폐절제술이고, 다른 하나는 폐암의 유전자 변이(EGFR 혹은 ALK)에 따른 표적항암치료제의 출시다. 예전과 달리 흉강경 기구를 이용한 폐절제술은 단순히 절제 범위와 수술 시간을 줄여 수술의 합병증 및 사망률의 감소를 넘어 폐암의 장기 생존율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표적항암제의 출시는 폐암 환자의 장기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존 항암제와 달리 경구로 복용이 가능한 표적항암치료제는 정상세포에 대한 영향이 적어 부작용이 적고 암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방해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로써 진행된 3기, 4기 폐암 환자에서도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암 조직에만 국소적으로 방사선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체부정위 방사선치료(SBRT)는 수술과 유사한 국소 조절 성적을 보여 수술의 고위험 환자 또는 수술 후 국소 재발 환자에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새로운 기전인 면역항암제가 개발됨에 따라 폐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EGFR 및 ALK 유전자의 변이가 없이 PD-L1 유전 변이의 과발현이 있는 경우 현행 항암화학요법보다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두 배 이상 생존기간이 연장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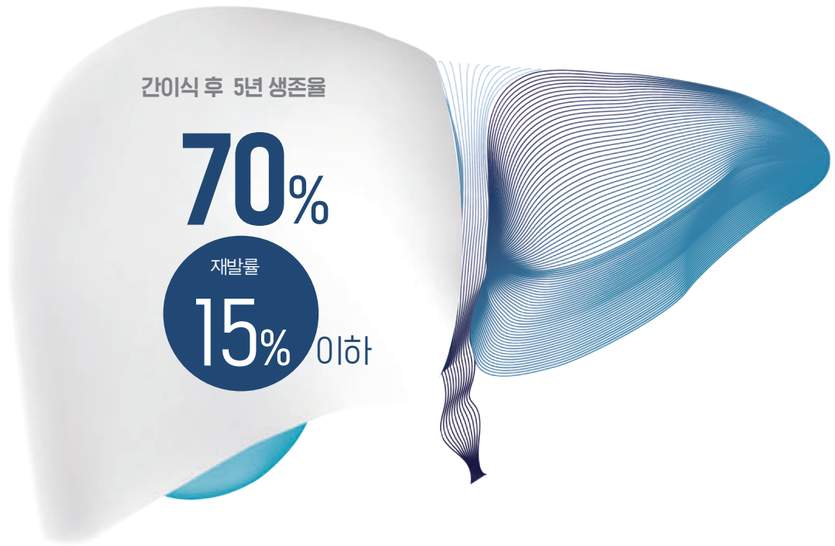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성 폐암 환자의 경우 1차 약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아직 보험 급여 문제의 제약으로 많이 보급되지 못하나 앞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폐암 치료 성적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나가는 한양대학교병원 폐암센터

폐암은 치료하기 어려운 암 중 하나이다. 단일한 한 개의 진료과에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 진료과가 모여 다학제간 통합 진료를 시행해 최신 의학 지식을 토대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폐암센터는 2014년도부터 다학제간 통합 진료를 시행하여 각 환자에게 맞는 최상의 포괄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에 참여하여 각 진료과 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치료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각 진료과별로 최신 의학 지견을 내어 이를 공유하고, 면밀한 진단 과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진료의 효율을 높이는 폐암위원회 및 흉부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폐암센터에 마련된 암환자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과정 또는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방법, 영양상태 유지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폐암센터는 치료의 시작부터 완치까지 환자를 위한 진정한 진료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간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는 장기인 간은 평균 1,500g의 무게로 체내에서 가장 큰 장기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양하고 타 장기에서 발생한 암이 가장 많이 전이해 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재발이 많은 난치병인 간암 정복을 위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소화기내과와 외과를 중심으로 긴밀한 다학제 진료를 통해 간암의 효과적인 치료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글. **김한준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암의 병기와 기저 간 기능에 의해 예후가 결정되므로 두 가지 요소로 치료법을 결정한다. 대부분 간암은 간경변증 혹은 간염을 동반하고 있기에 간세포암 치료를 위해 이들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간암이 아무리 초기라 해도 간 기능이 나쁘면 근치적 절제술을 할 수 없고 반대로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도 간 기능이 좋으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술을 고려할 수 있다. 암환자에서는 임상적인 상태와 간암의 병기를 고려한 후 종양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단독 혹은 병합하여 극대화하는 치료법을 선택한다.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경동맥화학색전술은 간동맥을 선택적으로 막아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간은 정상적으로 간동맥(20~30%)과 간문맥(70~80%)으로부터 이중으로 혈액을 공급받는다. 정상 간세포는 간동맥과 간문맥으로부터 모두 혈액을 공급받는 반면 간암세포는 간동맥에서만 혈류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간동맥을 막아버리면 간암세포는 혈류 부족으로 죽게 된다.

고주파 열치료 고주파 열치료는 세포에 섭씨 50~60도 이상의 온도로 열을 가해 단백질이 변성되어 괴사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종양 내에 바늘 모양의 전극을 위치시키고 전극을 통해 고주파를 흐르게 하면 종양 내부의 이온들이 고주파 전류를 따라 이동하며 떨림 현상이 생기고, 마찰열이 발생한다. 섭씨 60~100도로 상승한 전극은 종양세포의 막을 파괴, 괴사시킨다.

표적항암약물치료 표적항암제는 간암세포의 증식 및 분화, 전이, 혈관 형성 등의 발달 과정에 필요한 여러 경로의 단백물질 활성화를 저해하는 약물로서 현재까지 간암에 효과가 증명된 약제는 소라페닙이라는 약제이다. 소라페닙은 진행된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생존기간을 약 3개월, 간암 진행까지의 시간을 3개월 정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은 가장 오래된 비수술적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초음파를 보면서 종양내부에 가는 바늘을 삽입한 후 고농도(95%)의 에탄올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간암에 에탄올이 주입되면 조직이 탈수되고 응고되며 소혈관에 혈전이 형성되어 암세포가 파괴된다.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간암의 수술적 치료

절제술 간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알려진 절제술은 암이 발생한 부위를 포함하여 주변의 정상 간 조직을 일정 부분 포함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개복 절제술과 복강경 절제술이 있는데 복강경 절제술은 최근 도입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 나아가 로봇 간절제술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장점은 복부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아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 최근에는 좌측 간절제술의 경우 복강경 절제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간이식 이식이란 살아 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다른 생체에 옮겨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고형종양 중 유일하게 간암 환자의 치료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간이식은 이론적으로 간암의 제거와 대부분의 경우 동반되는 만성 간염, 간경변증 등이 동시에 치료되어 간 기능도 정상화되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다. 일반적으로 종양이 하나인 경우는 5cm보다 작고, 개수가 3개 이하인 경우는 제일 큰 것이 3cm보다 작으면서 혈관침범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간암 환자에서 간이식을 하면 5년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재발률 또한 15%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 최근에는 간이식의 기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간이식 후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뇌사자 간 이식의 경우 공여자가 많지 않아서 생체 공여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외과에서는 앞서 기술한 모든 치료법을 시행하여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연관된 진료과들이 소화기내과와 외과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다학제적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임상진료뿐 아니라 간질환과 간암에 대한 기초연구도 활발하여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최동호 교수팀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줄기세포를 통한 인공간, 인공담도에 대한 기초연구도 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췌장암의 조기 진단 및 효과적인 치료

루치아노 파바로티, 스티브 잡스, 배우 김영애의 공통점은 췌장암으로 투병을 한 유명인이라는 점이다. 흔히 암 중에서도 완치가 어렵기로 소문나고 까다로운 질병으로 꼽히는 췌장암을 연구하며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센터. 췌장암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글. **윤재훈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우리 몸의 혈당 조절원, 췌장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췌장은 선방세포에서 췌장액을 만들어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외분비 기능(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과 호르몬을 혈관 내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혈당 조절)을 가지고 있다.

정상 성인의 경우 하루 1~2리터 정도의 췌액이 분비되고 췌장 세포의 약 95%는 외분비에 관여한다. 췌액은 췌장 안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가는 관들을 통해 췌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주췌관에 모여 분비된다. 주췌관은 췌장의 머리 부분으로 들어오는 총담관(간에서 나간 총간관과 담낭에서 나간 담낭관이 합쳐진 관)과 만나 십이지장으로 열리는데, 췌장액은 이 경로를 따라 십이지장에 들어가 소화를 돕게 된다. 따라서 췌장에 병이 생기면 소화효소의 배출이 감소해서 음식물 속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므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줄어들게 된다. 내분비 기능은 췌장의 조직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한다.

췌장암의 종류

췌장암은 세계적으로 매년 약 25만 명 이상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암 발생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중앙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소화기 암종 중 위암, 대장암, 간암 다음으로 발생률 4위이고, 전체 암 중에서는 2.3%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췌장에 생기는 종양은 양성 종양에서부터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악성 종양 즉 암에 이르기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그중 가장 흔한 물혹이라고도 하는 낭성 종양도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은 악성 아닌 양성이지만 간혹 처음부터 악성이거나 진단 당시에는 양성이었다가 이후 악성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 췌장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췌관 선암종이 가장 흔한 유형의 악성 종양이다. 60대에서 80대 남성에게서 잘 발생한다. 췌장 악성 종양의

85~90%가량을 차지한다. 담도나 십이지장의 폐색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선방세포 암종은 췌장 외분비 종양의 1~2% 이내로 드문 종양이다. 중·노년의 남성에게 주로 많이 생긴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발생 빈도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하인 아주 드문 종류이다. 대부분은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종양이다. 일부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도 있다.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에 좀 차이가 나고, 수술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췌장암의 빈도는 남성에서는 11.8명/10만 명, 여성에서는 10.0명/10만 명의 발생률로 남성, 여성에서 9번째로 호발하는 암이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위암, 폐암, 간암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췌장암은 기간 내 큰 추이 변화가 없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췌장암의 치료

췌장암에서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수술적 절제는 암이 췌장에 국한된 경우에 적용한다. 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절제하며, 상황에 따라 주변 조직도 함께 제거한다. 수술 방법은 암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항암화학요법도 많이 시행된다. 항암화학요법, 통칭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체내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암이 이미 전이되어 수술이 힘들 때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 또는 수술 후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항암치료를 시행한다. 항암치료는 치료 시기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시행한다.

보조 항암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은 수술 후에 눈에 안 보이게 퍼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항암제를 쓰는 방법이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의 재발은 대부분 원발 종양 이외의 부위에 존재하던 미세전이 암세포에 의한 것이므로 보조적 항암요법을 통해 재발을 줄이고 생존율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선행 항암화학요법(Neoadjuvant chemotherapy)은 국소적으로 암이 진행되어 절제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수술 전에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원발 종양크기와 침윤의 범위를 줄여서 완치목적의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전제로 하여 국소치료 전에 시행하는 방법이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Palliative chemotherapy)은 이미 암이 진행되어서 근치적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증상을 완화하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혈액검사, 복부 CT, 암표지자,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 PET CT검사, 췌장의 선형초음파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 간담췌수술, 항암치료 등 췌담도 분야 내과와 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혈액종양내과와의 다학제 접근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고, 매우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 재발에 대한 추적관찰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초의 역사로 최고의 기록을 이어가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개원 20주년

1998년에 개원하여 20년이 지난 지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가 병원의 문을 두드릴 만큼, '류마티스질환 치료'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라는 공식이 공고해졌다. 최초의 역사로 최고의 기록을 써내려온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20년 여정을 살펴본다.

글. 정라희 사진. 김재이

류마티스질환 치료의 시작과 끝

1990년대만 해도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근원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이 점차 많아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류마티스'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85년, 원내에 류마티스내과를 독립적으로 설치했으며 1980년대 말에는 류마티스센터를 개설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수진을 비롯한 여러 의료 인력을 충원해 1998년에 비로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체계가 갖춰졌다.

"돌아보면 우연이 필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선견지명으로 당시로써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주었죠. 류마티스병원 개원 준비 당시 제1대 원장인 김성윤 교수와 정년 퇴임한 김신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초창기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1990년대 초반에 합류해 지난 역사와 동행할 수 있었고요."

현재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을 맡고 있는 배상철 교수의 말이다. 배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처럼 체계를 갖춘 류마티스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고 전한다. 미국 뉴욕에 두 곳 정도가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유일하다. 골관절외과와 관절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통증의학과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원스톱으로 류마티스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다양한 관절염 치료를 진료하되, 루푸스와 근염, 경피증, 강직성 척추염 등 류마티스내과 안에서도 세밀하게 세부 전공을 나눴다.

진료와 연구의 하모니로 밝히는 질환의 비밀

20년 이상 축적한 진료 데이터는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는 류마티스질환의 비밀을 밝히는 근거다. 연구적 측면에서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의학계에 큰 공로를 세우고 있다. '실용학풍'을 앞세워 진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임상연구센터를 발족했으며, 임상역학 · 경제연구실, 약물역학연구실, 맞춤의학실 등을 갖추고 실제 치료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새로운 약물 치료방법과 정밀의학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혈액과 소변, DNA 등의 조직을 정리 · 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 역시 단일전문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진료부와 연구부를 연계하는 중개의학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특징이다. 류마티스예방센터에서는 1차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질환이 심화되지 않도록 돕고 있으며, 난치성세포치료센터에서는 난치성 류마티스질환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를 하는 곳. 일반 약제로 반응이 없는 루푸스 환자들이 주로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전국 50여 개 대학병원이 참여해 국내 류마티스관절염의 코호트 자료를 만들고, 임상시험 등을 시행했죠. 당시 센터 총책임자로서 다섯 개 세부 과제를 수행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은 2015년에 종료됐지만, 이후로 2~3년간 연구자 주도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최종 연구를 마치면 류마티스질환 연구에 관한 가장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걸어온 길

1989. 6.	류마티스센터 개소
1993.	류마티스연구소 개소
1998.	류마티스병원 설립
2005.	류마티스 임상연구센터
2008.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 주관연구기관
2012.	류마티스 연구중심병원 체제 구축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배상철 원장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역사는 크게 '독점과 선점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 그리고 '평판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만 해도 국내에서 류마티스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곳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거의 유일했다. 2000년대는 환자들 사이에서 '한양대학교병원'하면 '류마티스질환 잘 보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났던 시기. 그때가 이미지의 시대였다면, 2010년 이후로는 사회적인 인지도에 걸맞은 평판의 시대를 다져가는 중이다. 배상철 원장은 "결국 평판의 기초는 연구"라고 말하며, 시대를 한 걸음 앞서 개척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성을 진정한 평판으로 유지하려면 난치성 질환 치료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일들은 인재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2006년부터 개원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류마티스내과는 물론 관련한 여러 진료과 의료진들이 깊이 있게 류마티스질환을 공부할 수 있는 심화과정을 개설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서 2회의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다. 2018년 5월에도 국제심포지엄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세계화의 밑바탕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도 류마티스질환과 관련한 약제 개발이 활발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개발하는 약제도 대개 류마티스질환과 관련돼 있고요. 자가면역질환은 환자 수가 늘어났다기보다, 미처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아요."

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국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20년 역사는 류마티스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함께 해온 동행기이기도 하다. 환자를 향한 진심과 탄탄한 실력의 조화로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류마티스병원으로 자리를 지켜온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이제부터 다시 그들이 써나갈 다음 20년의 기록은 어떠한 내용일지 궁금하다.

류마티스병원은 미국 뉴욕에 두 곳 정도가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유일하다. 골관절외과와 관절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통증의학과 등이 한곳에 모여 있는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원스톱으로 류마티스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걸어온 20년, 변화의 20년을 함께한 의료진 인터뷰

많은 이의 노고로 세운 병원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의 20년 역사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분의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때는 류마티스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라면 무조건 우리 병원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환자가 무척 많아,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환자를 볼 수 있을지 고민하던 날도 많았죠. 제 삶의 가장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기에, 언젠가 이곳을 떠나면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접어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이 임상 · 연구 · 교육이라는 기본 사명을 넘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

이광현 정형외과 교수

199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새로운 치료 약물인 DMARD(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를 일찍이 도입해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류마티스병원은 저에게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류마티스질환 치료 시작, DMARD 사용, 진단체계 도입 등 국내 최초 기록을 넘어, 환자수와 브랜드 가치, 연구 성과 등 최고의 면모를 갖춘 곳에서 일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안에서도 독립적인 병원으로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관이 되길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교수 임용 후 처음 시작한 일이 류마티스 환자의 발을 치료하기 위한 발클리닉 개설이었습니다. 류마티스병원 개원 당시 관절재활의학과의 전신인 셈이죠. 이후 20년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에서만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관절재활의학과 진료실과 검사실이 2층과 1층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환자들이 진료와 검사를 위해 1층과 2층을 오가야 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에서 보낸 20년은 제 삶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설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슬럼프 아닌 심리적 부상, 블래스 증후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

매일 밥 먹듯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못 하게 된다면 흔히 슬럼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유능한 선수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야구공을 정확히 던지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것을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이하 블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정리. 편집실

STEVE BLASS SYNDROME

올해 초에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갖가지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교도소에서 한 방을 쓰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좌완투수로서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야구선수 김제혁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수감자들이 가진 저마다의 사연이 얽히고 설킨다. 주인공 김제혁은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사람이지만 야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실력파다. 하지만 같은 방을 쓰는 제소자에게 습격을 당해 왼손이 마비되어 야구공을 쥘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 교정에서 틈틈이 공을 던져보지만 어쩐지 김제혁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다.

극 중 인물인 김제혁처럼 야구 선수가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등 제구력 난조를 겪는 증후군을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증후군은 1964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뛴 투수 스티브 블래스(Steve Blass)의 이름에서 따왔다. 팀의 승전투수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1972년 19승 8패의 성적으로 올스타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이듬해 별다른 이유나 경고 증상 없이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게 된다. 던지는 공이 스트라이크존에서 5cm, 50cm를 벗어나며 결국 은퇴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블래스는 수차례 정밀 검사와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재는 샌디에이고 코치로 활약 중인 전 두산 베어스 홍성흔 선수도 블래스 증후군으로 인해 포수에서 타자로 포지션을 전향했다. 또한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 존 레스터는 1루로 견제구를 던지지 못했고, 뉴욕 양키스의 척 노블락 선수는 결국 메인 투수에서 외야수인 좌익수로 전향하는 아픔을 겪었다.

많은 야구 선수들이 신체적 부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블래스 증후군은 심리적인 부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남긴다. 더 잘하고 싶은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증후군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배가 된다.

블래스 증후군은 야구뿐만 아니라 평소 잘하던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정신적 질환으로 골프, 농구, 피아니스트처럼 특정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담의 짐 덜어내는 정신운동부터 시작해야

노성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다른 종목

블래스 증후군과 비슷한 현상으로는 골프의 입스(Yips)를 들 수 있다. 입스는 운동장애의 일종으로 골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꼽히는 퍼팅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은퇴를 결정하는 선수들도 적지 않다.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골퍼들이 주로 걸리기 쉽다. 입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퍼터나 그립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양손의 위치를 뒤바꿔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단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 외에도 농구에서의 자유투, 테니스나 배구에서의 서브를 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원인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공을 던져야 할 내야수가 1루수의 글러브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어디로 공을 던져야 할지 초점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핵심이다. 명확하게 규명된 원인은 없지만 선수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이 그나마 일반적이다. 경기에서 늘 하던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잘하고자 하는 압박'이 끼어들면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들면서 공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며, 고통받는 선수들의 증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치료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이기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물을 다루는 세 가지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호전의 희망은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자신에게 닥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경기가 벌어지는대로 내버려두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원래의 자세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 마치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연습이 이뤄져야 한다. 관중이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하거나 모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수들이 실력을 검증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선수들의 불안과 걱정이 소멸될 때까지 정신운동,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환자 최우선의
청신호가 반짝이는 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국민병원

2016년 문을 연 국민병원은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대표적인 1차 의료기관이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되자'는 사명감으로 정진해온 지난 2년. 최상욱 병원장은 "가벼운 증상의 감기 환자는 물론 심각한 악성종양 환자까지, 정확한 진단과 진료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글. 윤진아 사진. 김재이

'동네병원' 전문성 높인다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한 국민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작은 종합병원'으로 통한다. '어디든 아플 땐 일단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동네의원'은 국민병원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웬만한 수술은 큰 병원을 찾지 않고도 국민병원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병원은 200병상 규모에 정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관절센터, 척추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다. 특히, 절단된 손가락을 원래 상태처럼 붙이는 수지접합수술은 타 지역에서도 환자 의뢰가 끊이지 않는다. 단순히 꿰매는 차원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을 봉합해야 하는 수지접합수술은 뼈를 맞추고 힘줄과 혈관, 신경 등 미세한 부분까지 재건해야 하는 만큼 숙련된 의료진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는 과거 산업현장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문틈이나 서랍에 손가락이 끼이거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 중 부주의로 절단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초기 응급처치를 잘하려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미리 알아둬야 하죠."

'지역 응급실 병원'이라는 수식어는 큰 책임감을 안긴다. 국민병원은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병증의 악화로 급하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진료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외상센터를 구축, 응급진료 및 수술에 대비하고 있다. 최상욱 병원장은 "보통 응급실이라고 하면 큰 병이 갑작스럽게 심해지는 경우에 가는 곳, 또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아주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벼운 부상을 당한 사람도 언제든 찾아도 된다. 응급실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를 하는 시설이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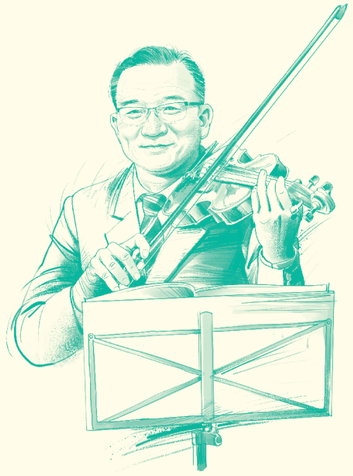
든든한 동반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국민병원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는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최상욱 원장의 철칙 때문인지도 모른다. 최 원장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 암 등의 만성질환은 자각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이지만 다양한 첨단장비와 재활 프로그램을 갖추고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다. 국민병원은 조기발견이 중요한 각종 암에 대한 검진과 밀착상담은 물론, 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암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MRI 장비를 확충해 한층 정확하고 수준 높은 건강검진이 가능해졌다. 최상욱 원장은 "최근 인력난과 경영상의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하는 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간의 검진사업을 통해 질병 전 단계에서의 관리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걸 확신했다"며 "쉽고 빠르며 정확한 정기검진 서비스를 통해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진 네트워크도 병원의 신뢰도를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다. 필요에 따라 빠른 판단으로 환자를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1차 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일 터. '내 환자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완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라는 최 원장의 말에 힘이 실렸다.

"개인적으로 저와 한양대학교병원과의 인연은 꽤 긴 편입니다. 전에 근무하던 병원이 왕십리에 있었는데, 그땐 한양대학교병원으로 환자를 참 많이 보냈죠. 수술하다가 여차하면 환자와 같이 구급차 타고 한양대학교병원으로 간 적도 있어요. 지금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큰 수술이나 고도의 협진이 요구되는 복잡한 수술일 경우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연계해 신속한 치료를 꾀합니다. 환자의 경과와 예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도 치료를 잘해줘 환자도 저희도 든든해요. 믿음직한 동반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함께 '환자 최우선'이라는 국민병원의 철학을 멈추지 않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벨칸토 오페라의 보석



Vincenzo Bellini Opera <I Puritani>

빈센초 벨리니 오페라 〈청교도〉

낭만주의 예술의 핵심은 광기 어린 천재성이다. 천재성을 타고난 비르투오소적인 예술가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다. 광기로 치달은 등장인물을 통해 그들은 불멸의 예술작품을 탄생시켰다. 젊고 순수한 주인공들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상에 저항도 없이 미쳐버리고 마는 가혹하고 운명적인 전개에 관객들은 감동을 받았다. 로시니, 도니체티와 함께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벨리니는 프랑수아 앙슬로(Francois Ancelot)의 희곡 〈공화파와 왕당파〉를 토대로 한 카를로 페폴리(Carlo Pepoli) 대본 〈청교도〉를 1835년 1월 파리 이탈리앙 극장(Theatre-Italien, Paris) 무대에 올렸다.

강약의 폭이 좁은 벨칸토 창법에서 가수는 성량을 치밀하게 조절하고 발음을 분명히 해 빠른 패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계를 아무리 빠른 템포로 오르내리더라도 그 음들 사이를 분명하고 매끄럽게 연결하는 레가토(Legato)가 벨칸토 창법의 관건인 것이다. 오페라 〈청교도〉는 성악의 선율만으로도 벨칸토 오페라 최고의 보석으로 꼽힌다. '아르투로' 역은 '하이 F'의 고음까지 불러야 하는 고난도 테너 배역이고 '엘비라'는 여러 번의 실성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연기하며 유연한 콜로라투라 기교를 구사해야 하는 소프라노 배역이다. 조연인 '리카르도'와 '조르조' 같은 저음의 가수들까지도 콜로라투라 기교를 소화해야 하는 동시에 깊이 있는 드라마틱한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긴 공연시간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은 오페라 전반에 흐르는 선율의 아름다움과 광기 어린 아리아에 몰입하게 된다.

시칠리아 지방에서 태어난 벨리니는 1824년 로시니의 오페라 〈세미라미데〉를 보고 결정적으로 오페라에 몰두하게 된다. 활동 초기부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 작품을 올리면서 오페라 〈해적〉을 작곡할 때 만난 대본가 펠리체 로마니와 함께 〈노르마〉, 〈몽유병 여인〉 등의 히트작들을 발표했다. 유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로 인기를 끌었지만 늘 병약했던 그는 파리로 이주해 이 오페라를 발표 후 34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벨리니의 유작이 되어버린 〈청교도〉의 내용은 이렇다. 1645년 영국 내전 중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이끄는 청교도 공화파군은 왕당파에 승리를 거두자 크롬웰은 스튜어트 왕조의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이 혁명 세력은 영어로 '퓨리턴'이라고 부르는 청교도로, 원죄설을 특별히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인간이 원죄를 저질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사는 동안 이 원죄를 끊임없이 속죄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청교도의 삶은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었으므로, 욕망으로 타락할 수 있는 원초적 죄인인 인간은 항상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도덕적 태도를 견지했다. 안식일에는 오로지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정착한 미국 뉴잉글랜드에서는 일요일에 청소나 목욕을 해도 처벌받았고 불을 지펴 요리하는 것도 엄금했다. 그래서 토요일에 미리 음식을 해놓았다가 일요일에는 식은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제1막 영국 플리머스 근처 청교도군의 요새 성안에서는 발톤 경의 딸 엘비라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다. 한편 리카르도는 사랑하는 엘비라와 결혼을 못하게 되어 상심한다. 원래 성주 발톤 경은 그녀를 리카르도와 맺어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녀가 왕당파인 아르투로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동생 조르조에게서 듣고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다. 오늘 신랑이 아르투로라는 사실을 조르조가 엘비라에게 알려주자 엘비라는 매우 기뻐한다. 아르투로가 도착해 그녀에게 아리아 '사랑하는 이여, 그대에게(A te, o cara, amor talora)'를 부르며 사랑을 확인한다. 스튜어트가의 중요한 여죄수를 런던 의회로 호송하는 책임 때문에 발톤 경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르투로는 여죄수가 크롬웰에게 처형당한 스튜어트왕조 찰스 1세의 왕비 엔리케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엘비라가 나타나 아리아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랑스런 처녀(Son vergin vezzosa in vesti di sposa)'를 부르자 아르투로는 여죄수인 왕비를 말에 태워 요새를 빠져나간다. 리카르도는 그들이 도망치도록 놔둔다. 한편 하객들 앞에서 아르투로가 다른 여인과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자 엘비라는 실성하고 자신이 아르투로와 함께 교회 제단 앞에 나선 것으로 착각하면서 행복했던 나날을 회상하며 아리아 '그대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부르고(Qui la voce sua soave)'를 부른 후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아리아 '오세요, 내 사랑이여, 하늘에는 달이 떴군요(Vien, diletto, é in ciel la luna)'를 부른다.

제2막 성안의 홀 조르조가 나타나 미쳐버린 엘비라의 상태를 성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리카르도는 의회가 아르투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엘비라가 나타나 실성한 채로 '그대의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부르고(Qui la voce sua soave)'를 노래한다. 그녀가 리카르도도 알아보지 못하자 그도 마음이 움직이고, 조르조는 그런 리카르도에게 아르투로가 돌아와야만 엘비라가 살 수 있다며 '자네가 연적을 살려야 하네(Il rival salvar tu dei)'를 부른다.

제3막 성 부근 아르투로는 도피 중에 엘비라를 다시 만나고 싶어 요새 쪽으로 몰래 다가오면서 옛날 그녀와 함께 부르던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그때 요새 안에서 엘비라의 노래가 들려오고 두 사람이 재회하면서 그녀는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아르투로가 왕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자 엘비라는 그를 이해하고 기쁨의 아리아 '그대를 품에 안으리(Vieni fra queste braccia)'를 부른다. 그때 리카르도가 나타나 아르투로를 체포하자 그녀는 다시 실성하면서 엘비라와 아르투로, 리카르도, 조르조가 함께 사중창 '버림받은 줄 아는 가여운 그대여(Credeasi misera)'를 노래한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려는 순간 크롬웰의 전령이 달려와 사면 소식을 알리자 다시 정신이 돌아온 엘비라와 아르투로는 뜨겁게 포옹하며 막이 내린다.

들을만한 Album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
(EMI, 1953)

지휘: 툴리오 세라핀
마리아 칼라스(엘비라)
주세페 디 스테파노(아르투로)
로란도 파네라이(리카르도)

로열 코벤트 가든 오페라
(Decca,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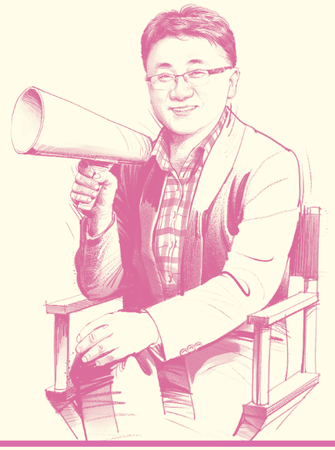
지휘: 리차드 보닝
조안 서덜랜드(엘비라)
루치아노 파바로티(아르투로)
피에로 카푸칠리(리카르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DG, DVD, 2008)

지휘: 패트릭 서머즈
안나 네트렙코(엘비라)
에릭 커틀러(아르투로)
프랑코 바실로(리카르도)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미투(Me Too) 운동,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해자가 외면한 피해자의 상처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하여

유권자의 신임을 적지 않게 얻었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20년 이상 리포터로 지난한 삶을 버티면서 신뢰와 성실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한 방송인의 공통점에 대해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교적 잘 알려진 남성들(여자도 포함)에 의해 자행된 이성(동성도 적지 않다)에 대한 폭력적인 과거사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이니 말이다.

그동안 직장, 사회에서 행해졌던 성추행, 성폭력 행태는 대한민국 범죄백서를 다시 쓰게 만들 정도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여성혐오, 여성증오(Misogyny)의 시각에서 출발한다.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에 매몰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었지만, 이는 교육과 사회생활 참여부터 남녀의 차이를 두게 되면서 기회의 불균등에서 파생된 귀납적 오류일 뿐이다.

담론의 주제를 좀 더 확장해보면 이러한 폭력적 시각은 비단 남녀 사이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증오와 불신이라는 이름의 전염병은 직장, 학교, 가족 내부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어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렇기에 폭발을 우려한 상사의 "괘념치 말거라"라는 한 마디에 그저 참아야만 했던 미생들의 소리 없는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할리우드에서 촉발된 미투(Me Too) 운동은 그 면면을 살펴볼 때 여러모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건강하고 올곧은 사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운동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각한 외상을 입은 채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미투 운동에 참여했으나 2차 피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식해야 한다. 평범한 삶 뒤편에서 하염없이 흐느꼈을 사람들을 느껴야 한다.

미투 운동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올렸던 영화는 〈슬리퍼스(1996)〉다. 뉴욕 뒷골목의 꼬마 악동 4명은 어느 날 장난으로 시작한 일 때문에 한 남자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되어 소년원에 수감된다. 그들에게 1년 반의 수형생활은 구타, 감금, 향정신성 약제 강제 투여, 거기다가 은밀히 행해지던 간수들의 성폭행으로 인해 지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14년이 지난 후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친 간수는 폐인이 되어버린 소년원 피해자의 손에 의해 죽는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다. 〈슬리퍼스(1996)〉는 소년 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삶의 상당 부분을 훼손당한 채 성인이 된 친구들을 그려낸다. 복수는 신만이 할 수 있다지만 그들의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며, 가해자를 단죄한 뒤 남는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고민하게 된다.

신의 대리자로서 믿음을 주는 가톨릭 사제들. 일부 보스턴 교구 신부님들에 의해 저질러진 아동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수많은 방관자에 의해 함구 된다. 영화 〈스포트라이트(2015)〉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저널리즘의 근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30여 년간 자행된 성추행 사건을 파헤친 보스턴글로브 신문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들의 계속된 탐사보도는 결국 교황청의 사과를 받아내며 정의를 구현한다. 보도과정 중 맞닥뜨린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그날의 악몽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신망받는 사제를 고발함으로써 받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 되풀이되는 잘못은 가해자를 합리화시켜 더더욱 악랄한 범죄를 양산하게 만든다.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가정 내 성폭행은 인륜을 저버린 인면수심의 대표적 범죄이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아빠를 살해한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며 고향을 떠난 지 15년 만에 다시 엄마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섬으로 돌아온 유능한 여기자 셀레나. 아빠의 죽음과 함께 무의식중에 증발해버린 어린 시절 아빠의 성추행을 상기하게 된다. 〈돌로레스 크레이븐(1994)〉은 개기일식이 있던 날 밤의 살인을 달(여성성)이 태양(남성성)을 가린다는 상징과 맥락으로 표현한다. 딸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살인의 단초가 자신이었음을 감지하고 여성으로서의 동지애를 느낀다.

어릴 때 고모부에게 성폭행 당했던 작은 소녀는 유일한 바람막이였던 엄마의 죽음과 함께 세상과 단절되었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불가능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감정표현을 하지 못한다.

〈여자 정혜(2005)〉는 1m 거리에서 촬영한 핸드헬드 카메라 덕분에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미세한 감정의 흐름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따라가게 만들었다.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로부터 영화 시작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녀의 얼굴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이 무미건조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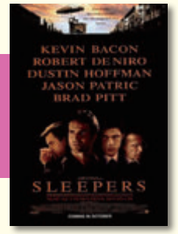
우울해하는 동서를 위로하기 위해 마지못해 나선 밤의 유흥. 강간당할 뻔한 위기에서 대학생의 혀를 깨문 가정주부가 있었다. 혀를 잃게 된 가해자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된 후 믿었던 남편과 동서는 불신과 위증으로 반응하고, 이혼 경력 때문에 인격모독으로 일관하는 상대측 변호사에 말려 과잉대응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는 30년이 가까운 지금 돌아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의 젠더(Gender) 관은 여전히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씁쓸한 소회가 깃들게 된다. 항소심에서 변호사(손숙)의 일갈은 여전히 명징하다. "판결 전에 제가 먼저 피고 임정희에게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녀는 유죄입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피해자인 그녀의 처참했던 과거를 즐겼고, 치욕적인 현재를 즐겼으며, 이제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세 번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자로서 죽임을 당했고, 현장검증에서의 모욕과 수치로 인권을 죽였고, 법정에서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까발려지면서 한 가정의 주부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소녀에게 돌을 던지라." 꽃은 줄기가 달린 채 아침이슬을 머금고 벌들이 찾는 한 향기를 뿜으며 아름답다. 무단으로 꺾어 나 혼자만 보기 위해 책상 위 꽃병에 장식하는 순간, 시들게 된다. 미투 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범했던 나의 부주의한 행동이 누구에게는 씻지 못할 아픔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참회의 마음으로 작성한다.

볼 만 한 Movie

스포트라이트(2015)

여자, 정혜(2005)



슬리퍼스(1996)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Paul Klee

추상화 작품에 묻어난 전신경화증의 흔적

파울 클레와 전신경화증

글. 전재범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매년 6월 29일은 세계 경피증의 날(World Scleroderma Day)이다. 동시에 전신경화증을 앓던 화가, 파울 클레가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질환인 전신경화증을 앓으면서도 폭넓은 예술세계를 이어간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세네치오, 1922

예술적 열망을 꺾지 못한 전신경화증

파울 클레(1879~1940)는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와 함께 20세기를 빛낸 화가다. 그는 평생 약 10,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1936년 57세의 나이로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고 전신이 해체되는 고통 속에서도 1940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2,5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파울 클레의 초기작인 1922년의 작품을 보면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반영한 화풍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신경화증이 발병하고서는 굵직하면서도 단순하며 강한 터치, 삼베나 신문지와 같은 거친 물질들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단순하고 두꺼운 검정 크레용과 같은 선, 심볼, 칙칙한 색감, 그리고 고통, 죽음, 전쟁 등을 반영하는 타이틀이 특징이었다.

1933년 그는 전신경화증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레이노 현상의 존재를 암시하였고, 1935년에는 피로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에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1936년 전신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단 25점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 질환의 점진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는 1,253점의 작품을 제작하여 예술적 기세를 되찾은 듯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의 그림에는 힘겨운 투병 생활을 반영하듯 이전과 달리 주로 두려움, 고통, 죽음이 다뤄지고 있다.

이듬해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병원에 입원한 파울 클레. 마침내 1940년 6월 29일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고 만다. 사망 4개월 전에 촬영된 클레의 사진에는 긴장된 피부, 주름에 둘러싸인 입술을 가진 무미건조함이 얼굴에 서려 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짐작하며 완전히 변형된 사진과 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겼다.

1940년 초 클레의 후기 작품으로 꼽히는 〈Death and Fire〉는 그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흰색 두개골이 중심에 있으며, 그의 입과 눈은 죽음을 뜻하는 독일어 T, o, d로 형성되어 있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죽음의 손에 쥐고 있는 태양이 붉은 들판 가운데 어슴푸레 보인다. 클레는 아마도 이 그림에서 묘사되는 최소한의 인간에서 자신을 보았고, 이것은 경피증이라는 병이 개인적인 특징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Death and Fire, 1940

성과 태양, 1928

명확한 원인과 근본적 치료법 필요

전신경화증은 류마티스질환 중에서도 드문 질환에 속한다. 대개 처음에는 손이나 발이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나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손과 발끝의 색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레이노 현상(Raynaud's phenomenon)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손과 발의 피부가 두꺼워지고 가죽처럼 단단해지는 경피증(scleroderma)도 동반된다.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은 크게 광범위형과 제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범위형에서는 피부침범이 손과 발을 넘어 가슴과 배, 몸통까지 침범할 수 있으며, 제한형인 경우 주로 팔과 다리에 국한된다. 내부장기도 침범할 수 있는데 폐를 침범하는 간질성 폐질환과 폐순환의 압력이 증가하는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여 숨이 찰 수 있고, 위장관을 침범하면 위식도역류증상, 소화불량, 그리고 장내세균 과증식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전신경화증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독일인 화가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편지와 일생, 그리고 작품을 통해 전신경화증 환자들이 느낄 심리적 고통과 공포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었다. 파울 클레가 사망한 6월 29일은 세계 경피증의 날(World Scleroderma Day)이다. 사람들에게 전신경화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용감성을 인정하고 좀 더 나은 치료를 요구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에 경피증연구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세계 경피증의 날에 동참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전신경화증의 새로운 치료약물에 대해 들려오는 최근 소식이 전신경화증 환자들이 온몸과 마음으로 느꼈을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Endure!: how Paul Klee's illness influenced his art. Wolf G. Lancet. 1999;353:1516-8.
- Art and rheumatology: the artist and the rheumatologist's perspective. Hinojosa-Azaola A, Alcocer-Varela J. Rheumatology (Oxford). 2014;53:1725-31.
- http://worldsclerodermaday.org/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아이 삶의 시작을 희망으로 채워주신 분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3주를 보낸 박재유 군(15개월). 그런 아이의 질환을 바라보며 본인의 잘못인 것만 같았던 재유 군의 어머니 이현송 님은 소아청소년과 박현경 교수를 만나 용기와 긍정적인 기운을 받았다.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리. 이유정 사진. 김지원

박현경 교수님께

첫 아이라서 걱정보다는 장밋빛 미래가 앞섰던 저희 부부에게 임신 30주에 접어들며 찾아왔던 조기 진통은 두려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궁 수축 억제제를 맞으며 버티다가 35주를 겨우 채우고 재유를 낳았습니다. 무사히 만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청색증을 보이며 자발 호흡을 유지할 수 없던 아이는 계면활성제 치료를 받으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맨몸에 기저귀 하나만 차고 각종 호스와 호흡기, 테이프,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가려 재유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부모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현경 교수님께서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뼈와 살이 되는 이야기로 저와 남편의 중심을 잡아주셨지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했던 남편도 교수님의 회진 모습을 보며 보호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태도, 환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배웠다며 두고두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재유와 저희 부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던 박현경 교수님. 재유의 시작이 비록 건강하진 못했지만 교수님을 만나 오히려 큰 희망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받은 도움과 위로가 씨앗이 되어 재유를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재유가 세상에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보듬고, 가르치며 돕겠습니다. 교수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다음 진료 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유 엄마, 이현송 드림

교수님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받은 도움과
위로가 씨앗이 되어
재유를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현송 님께

처음 재유 군을 봤을 때 외견상으로는 극소 미숙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색증이 관찰되고 점차 호흡이 빨라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내렸습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포가 펴지지 않아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3주간의 치료 과정을 씩씩하게 잘 이겨낸 재유 군이 너무나도 기특했습니다.

지금도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재유 군 부모님의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님들의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생각이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저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보호자분들을 만나면 굉장한 아군처럼 느끼곤 합니다. 재유 군이 호흡기를 떼고 온전하게 웃던 날, 부모님, 재유, 의료진이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된 든든한 아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첫돌을 기념해 소아청소년과에 소정의 금액을 기부 해주신 재유 군의 부모님께 신생아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의료진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숙아 퇴원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유 군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번의 트라우마를 겪었기에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인슈타인, 처칠, 나폴레옹과 같은 위인도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출발점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지요. 재유 군도 받은 사랑만큼 널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길 기도하겠습니다.

박현경 드림

재유 군이 호흡기를 떼고
온전하게 웃던 날,
부모님, 재유, 의료진이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된
든든한 아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계 없는 도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글. 이진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18년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평창에서 또 하나의 올림픽,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되었다. 설상 종목 FOP(Fileld of Play) 의료 지원을 위해 의무지원팀을 꾸렸는데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는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 신속대응센터 이지영 간호사와 함께 팀을 만들어 현장에 파견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응집한 동계패럴림픽 현장에서 의무지원팀의 역할은 각국 선수들의 질병 및 외상 치료를 위한 진료와 경기 및 공식 훈련 시간 때 설상 코스의 위험 구간에 상주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하던 중에 호흡곤란으로 이탈하여 응급치료를 시행했고, 관중 한 분이 기절하는 일이 벌어져 모두가 처치에 힘을 쏟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열정과 관심이 동계패럴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반면, 10일의 일정 동안 수많은 경기 이벤트는 감동과 환희 속에 진행되었다. 앞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며 국가 간의 대항전이라기보다 장애를 안고도 평등한 조건과 환경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정신을 마음껏 보여줬던 장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의 모습에서 큰 울림을 받았다. 그가 흘린 땀에서 인내와 투지가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이다.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은 평화와 희망을 경기장 곳곳에서 만났던 약 10일의 기간. 힘든 의료지원 일정이었지만 장애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장애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과 무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불어 신체의 한계를 그들이 가뿐히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HANYANG NEWS

2018년 3월 ~ 2018년 4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주)메디블록과 업무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4월 9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메디블록(공동대표 이은솔·고우균)과 개인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통합 플랫폼 회사이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라이프로그 등 통합된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개원의를 위한 특별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4월 1일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대강당에서 '제24차 개원의를 위한 특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자궁선근증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치료법과 산과 영역에서의 처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강좌는 네 개의 세션과 한 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최중섭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젊은 여성에서 발견되는 자궁선근증의 수술적 & 비수술적 치료와 특히, 가임력 보존에 관해 집중 토의하는 장과 개인정보 및 미래의료 상황 대비와 향후 건강보험 정책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강의도 마련했다"며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천식 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천식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천식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만 15세 이상 천식 환자를 진료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검사 영역, 치료지속성 영역, 처방 영역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과 그렇지 않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평가에서 본원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돌파

본원이 다빈치를 이용한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한 기념으로 지난 4월 4일 본관 3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갑상선암·두경부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봇수술센터장 태경 이비인후과 교수는 "로봇수술은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적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전립선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부인과암 등 다양한 환자에게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몸의 날 기념 건강강좌

본원은 지난 3월 21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잇몸의 날'을 기념해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치과 한지영 교수가 '치주병, 우리 몸을 생각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잇몸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 및 치료 등에 대해 강의했다. '잇몸의 날'은 잇몸 건강의 중요성과 잇몸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하루 세(3)번 잇(2)몸을 사(4)랑하자'라는 의미로 대한치주과학회에서 2009년부터 매년 3월 24일에 개최하고 있다.

'항결핵제 부작용'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3월 29일 본관 3층 강당에서 '항결핵제 부작용'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현 교수가 '일차 결핵약제에 대한 부작용과 대처 방법'을 주제로 결핵약제의 부작용 증상 및 대처방법과 다제내성 결핵에 적용하는 최신 약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현 교수는 "결핵은 여러 종류의 약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고 말하며 "환자가 약제를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임의로 중단하는 등의 행위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핵 약제에 대한 부작용과 대처방법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관 3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4일에는 성명순 사회복지사가 '루게릭병의 사회복지', 3월 24일에는 신경과 박진석 교수가 '루게릭병의 증상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2018년 상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22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 상반기 정년·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현 병원장, 김혁 부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및 많은 교직원이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광현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한양의 역사이자 저력이었고, 지금의 한양이 있을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변함없는 깊은 애정으로 항상 한양의 든든한 가족으로 남아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14명의 정년·명예퇴임자 모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본원은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관 4층 다학제 진료실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교수가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6일에는 '간질성폐렴 바로 알기', 3월 26일에는 '봄철의 불청객 알레르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성동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본원은 성동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18일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가 참여해 건강상담, 혈압, 혈당측정 등을 진행했다. 본원은 성동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매년 4월~9월까지 월 1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내기 예비 의사들, 병원 봉사활동 시작

본원은 본교 의예과 새내기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젝트인 'HY 엘로자켓 프로그램' 출범식을 갖고 지난 3월 21일부터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본원과 본교 의과대학은 지난 2016년부터 'HY 엘로자켓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의예과 1학년 새내기들이 1년간 본원 내에서 환자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제18회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4월 21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8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본원은 개원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번 연수강좌는 개원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척추질환, 통풍 등 임상진료 시 도움이 되는 강의들로 구성하였다"고 소개했다.

구리시 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본원과 구리시 보건소는 지난 3월 19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원은 구리시 보건소에 협력의사를 위촉하고, 구리시 보건소는 협력의사에게 치매진단평가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일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호선 교수가 협력의사로 위촉됐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일에는 이비인후과 정재호 교수가 '어지럼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 4월 6일에는 외과 김민규 교수가 '최신 위암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감염관리 및 신생아 소생술 교육 실시

본원은 지난 3월 29일 중회의실에서 감염관리 및 신생아 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분만 후 체온유지 단계에서부터 기도유지를 위한 분비물 제거, 자발호흡이 있는 아기에게 지속성 기동 양압환기 등 효과적인 소생술 등이 교육되었다.

인물동정

고성호 교수팀,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팀(한양대학교 의생명공학과 박현희 박사, 이은혜 연구원)이 지난 3월 10일 이화여대 이삼봉홀에서 열린 '2018년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Development of Target-specific peptide aptamer as an alternative of antibody for the amyloid beta 42'라는 논문으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또한 'Differences between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Ruptured and Non-Ruptured Carotid Plaques, and the Significance of ABCA1'라는 논문도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김규식 교수, 대한전립선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의학과 김규식 교수가 지난 3월 9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대한전립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식세포가 질편모충으로 감염시킨 전립선암세포의 침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태경 교수,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예송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가 지난 3월 24일 동탄성심병원에서 열린 '제48차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예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예송학술상은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에서 회원들의 연구 의욕과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연구성과가 높은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김승현 교수,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취임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지난 4월 13일 ~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김 교수는 "학술활동을 크게 임상·기초·신경심리로 확대하여 발전시키고 국제학회 유치 및 젊은 연구자의 연구지원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진 교수, 대한치매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지난 4월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Candesartan Restores the Amyloid Beta-Inhibited Proliferation of Neural Stem Cells by Activating the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athway'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원준 임상교수, 대한안과학회 율산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이원준 교수가 지난 4월 7~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19회 학술대회'에서 '녹내장 진행에 있어 안구광학단층촬영(OCT)을 이용한 신경절세포-내망상층 두께의 변화속도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율산학술상을 수상했다.

권오균 과장,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인사노무팀 권오균 과장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0차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안동현 교수, 신간 발간

아동정신병리학의 권위자인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동현 교수가 최근 『아동정신병리』라는 책을 발간했다. 또한 안 교수를 중심으로 총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번역서 『DSM-5기반 아동정신건강 사례 및 치료가이드』라는 책도 발간됐다.
안 교수는 "『아동정신병리』에서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데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진단하며 사례개념화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인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 사보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익한 의학 정보와 더불어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 전달의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에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18년 2월 ~ 2018년 3월

한양대학교병원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월 2일/ 고장난 잠금장치 배뇨장애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월 6일/ 무조건 심장 탓? 가슴통증 구별법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16일/ 더부룩한 명절 음식 소화 비법?, TV조선 [내몸플러스]/ 3월 4일/ 잘못된 습관이 위암을 키운다?!

김승현 신경과 교수 EBS [메디컬 다큐 7요일]/ 3월 17일/ 나를 버티게 하는 힘, 가족_루게릭병

권오정 외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3월 20일/ 하지정맥류

안희창 성형외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21일/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 치료성형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3월 28일/ 젊은 당뇨

이은혜 치과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3월 29일/ 누렇게 변하는 치아… 원인과 예방법은?

노영석 피부과 교수 YTNR [당신의 전성기, 오늘]/ 3월 30일/ 탈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2월 3~4일, 2월 10~11일, 2월 23, 2월 25일, 3월 9~10일, 3월 17일, 3월 24~25일, 3월 30~31일/ 뮤직 테라피

고성호 신경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9일/ 봄에 더 심해진다, 어지럼증

김창선 응급의학과 교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월 10일/ 온정인가 편향인가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29일/ 대상포진

Newspaper

2018년 2월 27일(화) 건강 15면

2018년 2월 27일(화) 건강 27면

2018년 3월 27일(화) 건강 B11면

2018년 2월 20일(화) 건강 23면

한양대학교병원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2월 13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안과 수술의 '꽃' 백내장 수술, 3월 13일/ 어린 생명을 구하는 상자 인큐베이터 **김미정 재활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2월 20일/ 1개월 만에…뇌졸중 '재활 골든타임'의 힘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조선일보/ 2월 27일/ 긴장하면 왜 입이 바싹바싹 마를까?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국민일보/ 2월 27일/ 암 치료+가임력 보존… 절제 범위 최소화가 좌우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한국일보/ 2월 27일/ '위 점막하 종양' 정확도 높은 새 진단법으로 개복수술 확 줄여, 조선일보/ 3월 6일/ 체하면 손끝 차가워지는 이유 / 3월 27일/ 대장내시경, "뇌졸중 위험 있다" **김근호 신장내과 교수** 국민일보/ 3월 1일/ 인구 고령화와 콩팥병의 상관관계 / 3월 4일/ "싱겁게 먹고 칼로리 줄이세요"… 8일은 세계 콩팥병의 날 **김희태 신경과 교수** 헬스조선/ 3월 5일/ "15년간 파킨슨병 함께 치료… 서로 실력 믿으니 든든합니다" **김진섭 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울신문/ 3월 6일/ 사춘기 온 아홉 살… 치료하면 10cm 큰다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3월 6일/ 국내 의약품 부작용 사망 원인 1위 '드레스증후군', 간질 환자 주의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3월 8일/ "부정맥 환자 10명 중 1~2명, 공황장애로 착각" **박계영 가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3월 13일/ 나이 들면 냄새 나는 이유 **박진석 신경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3월 17일/ 스티븐 호킹이 앓던 루게릭병… 초기엔 팔 · 다리 힘 빠지고 체중 줄어 **김정은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3월 20일/ 男이 女보다 피부 노화 느려… 기본만 지키면 '꽃중년' 된다/ 3월 20일/ 술 마시면 트러블 생기고 담배 피우면 노화 빨라져 **김영서 신경과 교수** 헤럴드경제/ 3월 21일/ 한쪽 팔다리 힘이 쭉 빠진다…'뇌의 경고' **노영석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3월 27일/ 미세 먼지 심한 날, 끈적한 화장품 바르지 마세요, 중앙일보/ 3월 28일/ 화장하면 먼지 더 붙어,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씻어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은창수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2월 5일/ 최신 검진 장비 도입… 정확도 크게 높여 **신정훈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2월 5일/ 암, 의사보다 손목시계가 먼저 안다 **최호진 신경과 교수** 국민일보/ 2월 11일/ "이제 치매는 친화 대상"… 사회 인식부터 바꾸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2월 26일/ 주륵, 에취, 간질간질… 알레르기 없는 아름다운 봄,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3월 19일/ 중산층 가족의 비극,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헤럴드경제/ 2월 7일/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철 '류마티즘관절염' 주의보 / 2월 21일/ '삭신이 쑤시는' 중노년층 관절질환, 관리만 잘하면 '청년'못지 않아요, 조선일보/ 3월 28일/ 류마티스 환자, 골절 사망률 높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 (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오병권 정유성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8년 2월 ~ 2018년 3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김경화	본관11층	노선균	흉부외과	손한숙	약제팀	이두연	정형외과	정수경	간호국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김금옥	중앙공급실	노정환	병리과	송종훈	정형외과	이민자	신경과	정재윤	소화기내과
유현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남기	재무팀	류기영	산부인과	신대현	상쾌한이비인후과	이봉근	정형외과	정재호	이비인후과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대희	대외홍보팀	류제일	신경외과	신동한	원무팀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정재홍	정형외과
박재유	고객	김도윤	정형외과	명동안과의원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성필	정형외과	정진혁	이비인후과
윤여욱	태암내과의원	김동섭	KD밝은안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용운	안과	이승욱	비뇨기과	정진환	신경외과
이영준	태양상사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문홍상	비뇨기과	신우종	마취통증의학과	이승환	이비인후과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김민규	외과	민경환	병리과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양섭	물류팀	조명희	심장센터
		김봉유	원무팀	박기철	정형외과	신정훈	심장내과	이영석	정형외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성재	한양대학교병원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창식	신창식이비인후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아라	영양팀
김경헌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승현	신경과	박성욱	원무팀	신태양	정형외과	이은희	간호국	조영아	소통의원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양옥	신생아중환자실	박예수	정형외과	심경아	본관11층	이장현	성형외과	조영완	경영지원실
김민경	한양대학교병원	김영보	홍보팀	박용미	본관6층	심재항	통증의학과	이제인	약제팀	조현진	QI팀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심지훈	정형외과	이종	교육연구팀	조희윤	안과
김영애		김옥중	물류팀	박원희	치과	안치원	응급의학과	이종숙	감염관리팀	채영림	재무팀
김옥인	고객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종희	본관8층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주원	의무기록팀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학	신장내과	최도전	본관5층
		김우길	시설팀	박찬혁	소화기내과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최승석	성형외과
		김운용	기획팀	박창구	시설팀	오영하	병리과	이진규	정형외과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김윤영	치과	박태선	호흡기내과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이창범	내분비내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정수	피부과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이창우	정형외과	최준석	탑이비인후과의원
강민호	안과	김주형	본이비인후과의원	박환철	심장내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이창훈	정형외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김준현	압구정안과의원	박훤겸	외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충혁	정형외과
강정한	강이비인후과의원	김지영	핵의학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유정아	영상의학과	이화준	QI팀	최혁중	응급의학과
강창남	정형외과	김지은	감염내과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최호진	신경과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윤명희	재활의학과	임완예	원목실	최홍용	비뇨기과
고란주	동관7층	김창선	응급의학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윤여필	물류팀	장성호	재활의학과	하루미	간호국
고병우	압구정안과의원	김철웅	정형외과	백운철	병리과	윤영선	간호국	장재선	간호국	한동수	소화기내과
고성호	신경과	김태완	홍익안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윤원구	윤정형외과	장지희	건강관리팀	한명훈	신경외과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김태형	호흡기내과	서승표	정형외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장태원	직업환경의학과	한상웅	신장내과
구선완	원무팀	김한준	외과	서우영	정형외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전석분	인공신장실	한승훈	재활의학과
국은영	간호국	김현욱	의료정보팀	서정심		이경식	감염관리팀	전용철	소화기내과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권순주	신생아중환자실	김회숙	약제팀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경희	본관6층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홍성숙	내시경실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영자	간호국	성민철	안과	이광현	정형외과	정규성	정형외과	홍의호	핵의학과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규용	신경과	정미선	원무팀	황규태	정형외과

성명	직장명(소속)
황의순	진료협력팀

10만 원 미만

성명	직장명(소속)
강다운	본관9층
강문주	본관11층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강석범	핵의학과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강신창	핵의학과
강영의	본관6층
강윤성	의무기록팀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강지원	기획팀
강해영	영상의학과
고희경	2층내과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공동의	정형외과
공지현	심장센터
곽동원	영상의학과
권난희	영양팀
권미화	호흡기내과
권연희	영양팀
권오균	노무팀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권은진	이비인후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권현숙	본관5층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경수	본관6층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경실	본관5층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규식	비뇨기과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기석	중앙공급실
김나영	본관18층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도와	내시경실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동윤	정형외과
김란	본관5층
김령	영양팀
김명환	영양팀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미라	성형외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미혜	내과계중환자실
김미화	고객지원팀
김미희	본관7층
김민아	본관10층
김민정	수술실
김민정	수술실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민희	2층내과
김백수	동관7층
김병숙	원무팀
김보미	신경외과
김상미	본관10층
김상훈	약제팀
김상희	본관11층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2층내과
김선영	재무팀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성애	당뇨병센터
김성철	병리과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소란	본관10층
김소연	인공신장실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순식	노동조합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아름	본관5층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애경	본관20층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연주	병동서무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영선	본관5층
김영신	치과
김영연	외과
김영일	임상연구지원팀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진	신경외과
김영훈	물류팀
김육원	영상의학과
김은미	정형외과
김은실	본관6층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김은희	수술실
김인호	약제팀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김재희	영상의학과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김정민	본관10층
김정숙	고객지원팀
김정안	본관7층
김정언	외과
김정희	영양팀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김중식	흉부외과
김창금	영양팀
김창복	홍보팀
김철한	원무팀
김초롬	본관5층
김춘애	영양팀
김태근	병리과
김태호	재활의학과
김택순	간호국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김현주	고객지원팀
김현진	재활의학과
김현창	물류팀
김현희	2층내과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김형석	약제팀
김형주	수술실
김혜림	감염관리팀
김효준	물류팀
김휘원	신경외과
김희나	본관21층
김희수	정형외과
나소정	수술실
나인철	재활의학과
남순영	본관5층
남승혁	흉부외과
노광규	인사총무팀
노옥석	동관7층
노준모	중앙성모병원
노창완	영상의학과
류중백	시설팀
명영숙	원무팀
모지은	소화기내과
문미영	2층내과
문상희	제3중환자실
문영민	영상의학과
문재봉	시설팀
문정희	본관9층
문한솔	외과
문희애	본관6층
박경림	보험심사팀
박경미	비뇨기과
박경숙	간호국
박경희	중앙공급실
박근배	보험심사팀
박명호	환자이송반
박미숙	영양팀
박미순	원무팀
박미옥	교육연구팀
박상혁	영양팀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박선영	원무팀
박선영	제3중환자실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박소은	영양팀
박수미	신생아중환자실
박수정	본관9층
박순구	안과
박연희	수술실
박용범	기획팀
박유정	감염관리팀
박은수	본관10층
박은영	내시경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박은형	고객지원팀
박응범	비상계획계
박점현	본관11층
박주은	분만실
박지경	영양팀
박지애	QI팀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박진옥	보험심사팀
박진희	인공신장실
박진희	인사총무팀
박춘아	수술실
박현정	피부과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방민주	제3중환자실
방성주	대외홍보팀
방지훈	신경외과
배순석	수술실
배은희	보험심사팀
백윤희	유니음악학원
백형정	약제팀
백혜연	수술실
서명진	주사실
서병갑	영상의학과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서승희	본관9층
서영남	본관8층
서영은	본관5층
서현주	진료협력팀
설명길	의료정보팀
성경희	본관7층
성명순	사회복지팀
성혜윤	본관8층
손영성	본관9층
손진석	국제행정지원팀
송명선	본관10층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송주영	본관7층
송현수	시설팀
신명희	치과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신수지	수술실
신정미	영양팀
신정은	인공신장실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신현주	인공신장실
신혜민	내시경실
심규진	본관7층
심규형	영상의학과
심요라	보험심사팀
안대웅	교육연구부
안명현	병리과
안미경	영양팀
안삼순	2층내과
안석태	영상의학과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안신영	본관9층
안유정	제3중환자실
안은종	의료정보팀
안은진	2층내과
안이슬	본관10층
안정미	수술실
안정은	본관11층
안정현	이비인후과
안혜옥	본관20층
양길녀	본관7층
양명화	간호국
양미영	영양팀
양수용	중앙공급실
양은주	낮병동
양정자	원무팀
양현	본관18층
양효선	약제팀
엄기숙	영양팀
엄혜정	수술실
여미진	본관10층
여은주	본관6층
오금복	신생아중환자실
오기향	비뇨기과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오연이	영양팀
오영숙	고객지원팀
오유선	본관9층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오정님	영양팀
오정숙	재활의학과
오정한	희명병원
오지현	주사실
오진영	2층내과
오홍석	
오화경	수술실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옥상열	홍보팀
우순희	수술실
우정미	고객지원팀
원혜정	부속실
원홍석	인사총무팀
위영현	약제팀
유고은	본관10층
유미화	물류팀
유병호	제3중환자실
유선길	내과중환자실
유선정	이비인후과
유숙	병리과
유영미	본관7층
유은희	제3중환자실
유정안	중앙공급실
유정자	본관7층
유주량	본관5층
유지학	인사총무팀
유헌영	물류팀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윤미영	본관8층
윤선미	영양팀
윤선애	본관7층
윤선희	영양팀
윤아름	본관10층
윤인숙	본관17층
윤정희	약제팀
윤지선	본관6층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윤현순	고객지원팀
윤희정	인공신장실
음희재	내시경실
이강연	인사총무팀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경철	기획팀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관석	원무팀
이규택	신경과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나리	본관10층
이나영	수술실
이두종	핵의학과
이명숙	병리과
이명주	약제팀
이미경	영양팀
이미란	신경외과
이미자	본관11층
이미정	본관10층
이미정	인공신장실
이민지	본관5층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상현	정형외과
이새롬	본관11층
이서윤	본관9층
이선영	본관6층
이선화	본관9층
이선희	원무팀
이성모	물류팀
이성미	이식센터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이수연	고객지원팀
이수진	내시경실
이숙	고객지원팀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순자	본관5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이연주	정형외과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이영주	2층내과
이예린	제3중환자실
이윤미	심장센터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이은경	인사총무팀
이은명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은애	본관5층
이은주	기획팀
이은형	소아청소년과
이정식	보험심사팀
이정애	병리과
이정은	고객지원팀
이정인	당뇨센터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이정화	신경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이정희	본관8층
이종열	치과
이주영	비상계획계
이주현	본관6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이준욱	의료정보팀
이지현	심장센터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이현주	본관7층
이현주	원목실
이현중	영상의학과
이혜정	수술실
이호문	영상의학과
이호용	영상의학과
임경순	신경외과
임다현	본관10층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임은자	이비인후과
임인자	수술실
임정연	고객지원팀
임종선	성민병원
임주아	정형외과
임지영	영양팀
임화영	비뇨기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장정아	육아지도실
전경신	신생아중환자실
전미선	간호국
전효선	영상의학과
정경은	본관5층
정기영	영상의학과
정대천	원무팀
정선주	본관7층
정선희	인공신장실
정수정	본관5층
정우성	새움병원
정유정	본관17층
정은영	수술실
정일웅	의료정보팀
정임증	응급의료센터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정정미	본관10층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정훈	의료정보팀
조경숙	인공신장실
조광희	본관9층
조구성	영상의학과
조규선	영상의학과
조영진	본관7층
조영훈	정형외과
조은영	영상의학과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조현일	시설팀
조환영	수술실
지미경	보험심사팀
지은아	본관8층
지혜정	의료정보팀
진춘희	영양팀
천경희	의료정보팀
천영복	물류팀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천은선	외과
최문정	본관5층
최미옥	제3중환자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최선미	인공신장실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최성은	교육연구팀
최세연	원무팀
최소담	영상의학과
최순애	인공신장실
최승희	본관10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최영선	인공신장실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최은영	본관8층
최재범	원무팀
최정연	대외홍보팀
최정훈	2층내과
최종석	영상의학과
최종은	보험심사팀
최진실	본관5층
최창순	동관7층
최현구	본관8층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최혜용	고객지원팀
최희영	QI팀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하동근	비뇨기과
하은영	약제팀
하지윤	원무팀
한미경	동관7층
한상운	원무팀
한수진	본관10층
한승희	수술실
한아영	수술실
한정연	성형외과
한현남	영양팀
한현수	의료정보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함명자	보험심사팀
허정헌	심장센터
허지선	본관7층
허지영	병동서무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허효숙	소화기내과
현순희	소화기내과
홍대영	인사총무팀
홍민영	비뇨기과
홍숙의	병동서무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홍은자	내시경실
황미향	영상의학과
황성환	교육연구부
황성희	정형외과
황영순	본관5층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황준호	의료정보팀
황희수	영상의학과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Hanyang Calendar

5 May

1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의 개요 및 진단, 치료/ 혈당측정, 저혈당 예방
4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피부노화에서 피부암까지_피부과 서현민 교수
8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약물 요법 / 구강관리
10	목	한양대학교병원	의료봉사		성동노인종합복지관	
15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 합병증 관리 / 식사요법
22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 / 운동요법
26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의 영양관리1_백희준 교수
28	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시간 미정	다학제진료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29	화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오후 12시	본관 1층 로비	박영연주단

6 June

1	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치매 예방, 고칠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다_신경과 고성호 교수
5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의 개요 및 진단, 치료 / 혈당 측정, 저혈당 예방
12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약물 요법 / 구강 관리
19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 합병증 관리 / 식사요법
21	목	한양대학교병원	의료봉사		옥수종합복지관	
23	토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루게릭병의 가정간호 / 김승현 교수님 Q&A, 류미순 가정전문간호사
25	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시간 미정	다학제진료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26	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오후 1시 15분	신관 2층 당뇨센터	당뇨병 환자의 발관리 / 운동요법

※ 당뇨 건강강좌 문의: **당뇨센터 031-560-2156**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금 모금 캠페인'

Sharing is happiness

생명 사랑 나눔의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공제 ·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용도** : 취약계층 환우의 의료비 지원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온라인(www.hyumc.com) → 사회복지기금 클릭 → 약정서 다운로드 (작성 후)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구 분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후원계좌	100-031-815870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병원)	100-031-811976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락처	02) 2290-9440	031) 560-2986
팩스	02) 2290-9439	031) 553-5118
이메일	ss9708@hyumc.com	kimyim@hyumc.com

*사회복지기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3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4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항락	금, 토(3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금	간질환
	이강녕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토(2주)	화, 목	담낭, 담도, 췌장
	김은진	수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재하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진화	토	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임대현	금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임영효	수, 금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박진규	월, 목	화,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허란	화	월, 목, 금	심장질환
	김병식	토(3주)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5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이준한	목, 토(2, 4주)	월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웅환	월~수,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5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목, 토(2주)		폐결핵, 폐암, 폐렴
	김상헌	화, 금	월, 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화, 수, 토(4주)	월, 목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폐질환
	이현	목, 금, 토(3주)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화, 수, 금	월~금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임현영	월~금	월~금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2주)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김남수	목, 금(구리),토(4주)	화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토(3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수, 목	월,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진섭	월, 금	화, 목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화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토(2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김영서	월, 화, 토(3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 금▲,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이상곤	수, 토(1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박평강	목, 토(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장애, 노인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김강률	목	화, 목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목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수, 금, 토(4주)	수, 목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김정은	월, 수, 토(3주)	화, 수,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화, 목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토(5주)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 목 (맘모톰)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갑상선 로봇내시경수술
	하태경	화, 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해 외 연 수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금		일반 흉부외과질환
	이준호	월	수~금	일반 흉부외과질환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토(1주)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목, 금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해 외 연 수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화, 토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구자욱		수, 금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허재승		월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박동혁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1644 – 9118 http://guri.hyumc.com

* 2018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월, 수, 토(1주)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4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3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최규선	금, 토(2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하지재건(미세수술),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욕창
	임수연	월, 토(3주)	수, 목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수부외상, 만성창상, 지방흡입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윤정수	수	월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월, 수	목, 금	일반 산부인과
안과 2290-8570	엄기방	월, 수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금, 토(4주)	월, 화(구리), 수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금, 토(4,2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금, 토(1주)	수,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화, 목(구리)	월, 목, 화·수(구리)	후두음성, 인후두역류, 소아이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목, 토(4주)	월, 수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곽민규		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인식	월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박해영	월, 수, 금	수, 금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열	월, 수,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윤영은	월, 화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조정기	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정재훈	토(2,3,4주)	목, 금	일반 비뇨기계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방사선종양학
	박혜진	월, 화, 목,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화,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금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황환식	화	금	
	하태경		화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이수진	월, 수, 목, 토(4주, 격월)	월, 수, 목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송재철	화, 수, 금, 토(4주, 격월)	화, 수, 금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2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3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2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월, 수, 금, 토(3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베체트병, 건선관절염, 혈관염
	조수경	월, 수, 금, 토(2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김지승	목	월,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형영	수, 금, 토(2주)	월, 화,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남보라	금	화,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안가영	월, 화, 목, 토(4주)	수,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금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월(2,4주)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목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화		쇼그렌 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월,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 2018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3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윤	수, 목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이재곤		화	소화기, 위장관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월, 수	수,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이용구	화, 토(2주)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이주학	화, 수, 토(2,4주)	월, 목	특발성 부종, 만성콩팥병, 고혈압, 전해질이상질환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금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유성훈	월, 금, 토(2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목, 금, 토(2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권혁희	화, 금, 토(3주)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유현승	목, 토(2,4주)	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4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문지용	해 외 연 수		
	박태선	화, 금, 토(3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여유미	토(2주)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종환자실 내과계	여유미	월~금	월, 화, 목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종환자실 외과계	오형석	월~금	화, 목, 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4주)	월,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2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수, 금, 토(2,3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화, 목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금	소아심장질환
	최영진	월, 목, 토(4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강하나	월, 목		신생아학
	강은구	수	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2,4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3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화(보건소),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목	월, 화, 금 (클리닉)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상학
	이호선	월, 화, 토(2주)	수, 금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신경외과	김충현	금	화,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2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토(3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4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화, 목, 금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오형석		월, 수	뇌혈관질환, 일반 신경외과
흉부외과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정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토(3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2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해 외 연 수		
	양재혁	목, 토(4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송종훈	화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3주)	화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2,4주)	월, 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혹),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최승석	월, 금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장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3주)	월, 금	안면외상, 욕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홍기	수, 금, 토(3주)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췌질환
	박훤겸	목	화, 금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토(4주)	목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김형석	월, 목, 토(2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월, 수, 금	대장항문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2,4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토(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신용운	월, 금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이민지	화, 수, 토(4주)	금	사시, 소아안과, 성형안과
	홍은희	목	월, 목	신경안과, 사시, 일반 안과질환
피부과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서현민	월, 화	수, 목,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민원	수, 금		일반피부질환, 피부알레르기질환, 두드러기,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안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해 외 연 수		
	정재호	금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박우성	목, 토(3주)	화, 금	비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송창면	화,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이윤재	월, 수, 토(2주)	월	비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엄지훈	목, 토(4주)	화, 목	이과, 두경부 질환 및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2,4주)	목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월, 수▲,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 (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박재현	화, 금	수▲, 금	일반 재활의학과질환
치과	박원희	월~목, 토(3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화, 금, 토(2,4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저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안전동력입니다

AM 2:00

남성우 방사선사의 시간

언제나 안심하고 믿음 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만드는 따뜻한 동력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의 24시간은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X-ray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CT), 자기 공명 영상 촬영검사(MRI),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도 방사선실의 기계 소리는 환자의 숨은 병변을 향합니다. 새벽 내내 최대 13명까지 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한 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공간.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검사 받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